

인간과 애완동물

韓 弘 栗*

1.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 애완동물 사례를 중심으로 —

머릿말

인간과 동물이 서로 관계를 가져온 지도 수천년이 지났다. 인류 초기에 동물은 인류에게 식량의 원천이자 운송수단 및 노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유대관계는 더욱 발전하여 17~18세기 유럽부터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음이 알려졌고, 이후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갖는 태도가 세계 각국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동물을 신성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식용으로, 애완용으로 혹은 동반자로 여기며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문명사회에서는 동물을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정신적인 즐거움의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많은 사회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교류는 아마도 경제나 생존 이상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애완동물을 단순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놀이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정서적, 육체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동물애호 정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가 그 나라의 문화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제일의 척도이다. 다

음은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이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육체적인 혜택

그동안 많은 개들이 시각 장애자를 위한 인도견의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서도 개들이 이용되고 있다. 청각 장애자를 위한 개들은 초인종이나 주인의 경보장치 소리 등 특정한 소리에 반응하도록 훈련된다. 개 뿐만 아니라 원숭이들도 떨어진 물건을 줍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을 돕도록 훈련받는다. 동물들의 이러한 역할들은 일하는 동물로서의 과거의 동물의 역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의 주인과 이들에게 봉사하는 동물들 간에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심장계 질환 환자 치료 프로그램에 이용

과거 15년간 '애완동물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 1980년 프리드만이 실시한 애완동물 소유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여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심맥관계 질병을 앓고 있는 애완견 소유자들은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퇴원후 1년을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개와의 산책을 통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개를 제외한 다른 애완동물을 기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 서울대학교 獸醫科大學 教授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1년을 더 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애완견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잠재적인 혜택을 증명해 주었으나 그 효과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조사 데이터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생존 가능성과 상관관계에 있는 심장마비가 단지 마비 이전의 건강상태에만 의존한 결과인지 아니면 애완동물의 소유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심장마비 경험 환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애완동물의 소유여부가 최초의 심장마비증세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완동물의 소유여부는 최초의 심장마비 발병과는 별도로 애완동물 소유주의 건강회복을 도와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최근 호주의 베이커 의학기간에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심맥관계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의 발생수준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여기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종류는 그 화과와 별 상관없이 있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는 곧 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정신 장애자 치료 프로그램에 이용

최초로 동물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19세기 벨기에의 길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재확립'하는데 동물이 도움을 준다는 확신아래 동물을 길렀다. 동물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또 다른 예는 1790년도 영국의 요크지방에서 었다. 보통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감금하는 것과는 반대로 요크 정신병 수용소에서는 환자들을 친절과 신뢰로 보살폈고, 환자들에게 토끼와 닭, 칠면조, 오리 등을 기르게 했다. 그 결과 환자들은 자제력을 갖게 되었다. 1987년 독일의 한 간질환 수용소에서도 동물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이 수용소는 거대한 치료기관으로 변모했는데 아직까지도 동물을 치료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Bustad &

Hines, 1984).

요즘에도 동물을 이용한 치료법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원조는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인 보리스 레빈슨이다. 레빈슨은 그와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유연히 그의 개를 보았을 때 개와는 상호반응을 하는 것에 주목했다. 아동과 개 간에 계속되는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레빈슨은 개를 그의 치료법에 성공적으로 이용해 왔다. 레빈슨은 아동이 우선 애완견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치료자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과도기적인 객체로서 개를 이용했다.

레빈슨의 학설은 동물과의 유대관계만으로 완전한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동물은 어떤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발하고 자극을 주며,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는 길을 열어주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레빈슨, 1969). 레빈슨은 동물을 치료에 이용하는 데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한 동물을 선택해서 목적에 따라 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은 오하이오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레빈슨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평가했다. 우선적으로 개들의 행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원내에서 개를 길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의 하나는 개가 짖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평이었다. 하지만 환자들 역시 개 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는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직원들과의 접촉을 거부해 왔던 몇몇 환자의 경우, 그들의 소리를 들은 개들을 돌보거나 함께 놀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물어왔다. 개와 환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의 결과, 애완동물을 이용한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연구가 실시되었다(Corson, Corson & Gwynne, 1975).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애완동물과의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애완동물과의 관계형성이 인간관계 형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와 이를 통해 상이한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개들을 환자들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 선별된 환자들은 기존의 치료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환자들이었다. 애완동물을 이용한 심리치료의 첫 과정을 이수한 30명의 환자들 중에서 애완동물을 거부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환자들은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 치료 이전에는 퇴행현상을 보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던 환자들이었지만 개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을 맡자 점차적으로 자존심과 독립심을 갖게 되는 등 상태가 좋아진 것이다. 연구 초기에는 개와 친해진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배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우려와는 반대로 환자들이 개들과만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던 결과, 개는 병실내에서 사회적 촉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애완동물 치료법을 지켜보던 다른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실 이 실험은 대조 검사된 것이 아니었고 애완동물 치료법과 동시에 기존의 방법에 의한 치료도 계속 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기존의 치료법 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었고 애완동물을 치료과정에 투입함으로 인한 혜택의 잠재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 실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 치료 프로그램에 이용

애완동물을 기르고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고혈압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생리학적, 심리적 지수 등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효과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또 동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각 개인의 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개를 무서워하는 한 환자의 경우, 개와 같이 있음으로써 더 많은 걱정을 하게되고 스트레스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로부터 받는 혜택의 정도는 동물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동물은 단지 약과 같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물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하다는 것이 나타났으나 이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본래 더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을 증명하기 위한 한 조사가 7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Serpell, 1990). 이는 애완동물의 소유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 이었고, 조사대상자가 새로 고양이나 개를 기르기 시작한 이후 10개월 동안 그들의 행동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자세히 조사했다. 물론 동일한 기간동안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동일한 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상반기 6개월 동안 현저히 좋아졌고, 개를 기르는 사람들의 경우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들은 더 많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범죄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덜었다. 또한 개들과 산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운동을 했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 모두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한지 한달 후에 그들의 건강상의 작은 문제점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는 개를 기르는 사람들의 경우 조사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이 연구 결과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조사자인 셸펠은 새로운 개나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조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애완동물과 인간의 건강간의 관계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명시해 주었다.

정서적 혜택

성인 및 노인

질병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 외에 애완동물은 인간의 복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동물의 동반자적인 역할은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하다. 노인들은 사회 어떤 계층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계층으로 이러한 감정은 그들의 배우자나 친한 벗을 잃었을 때 더 심화된다. 노인들은 애완동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덜게 된다. 애완동물은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Connell & Lage, 1984; Tolliver, 1984). 노인들에게 있어 애완동물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대신하는 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의 화제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의 양과 질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사회적인 윤택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공공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외로움과 우울, 소외감 등을 느낀다. 전통적으로 애완동물은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고 기관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양로원과 같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혹은 애완동물이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설,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기관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나 수용소 등지에서도 애완동물을 환영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수용소 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보다는 규칙적으로 애완동물이 그곳을 방문하도록 하는 데가 많다.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개들은 'PAT' 즉 '치료를 위한 애완동물'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용된다. 방문에는 체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동물들이 이용되었는데 이들의 방문결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결과, 직원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는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었다(Salmon et al., 1985).

아 동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에

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1985년 굿만은 그의 연구에서 애완동물은 아동들이 인간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을 촉진시켜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의 소유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애완동물을 기르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접촉한다(Mader, 1989).

한 미국 중학교에서 전체 1~100등까지의 학생과 풀지에서부터 100명을 선출하여 두 그룹을 만들어 그들의 성적이 차이나는 이유를 밝히고자 부모들의 교육정도, 수입, 인종, 종교, 주위환경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두 그룹 사이에 다른 점은 찾을 수가 없었고, 다만 상위권 학생들은 83% 이상이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단지 13%만이 애완견을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 왜 애완견을 소유한 학생들이 공부로 더 잘했는지를 연구한 결과, 애완견을 소유한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애완견에게 줄 수 있어 '사랑의 순환(love cycle)'이 이루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한쪽으로 부터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줄 줄도 아는 사람이 정서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뛰어난을 밝혀 낸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도견을 데리고 다니는 시각 장애자에 대한 조사였는데, 인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지팡이 만을 들고 다니는 시각 장애인들에 비해 지나가는 사람들과 두배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에서도 그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1983년 메상트는 그의 연구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메상트는 또 보통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40명의 애완견 소유주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날 다른 사람들과

의 대화시간이 더 길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개는 타인과의 대화를 촉진시켜 주며 이는 결국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동반자적인 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기도 하며 애완동물은 중대한 병후의 생존 가능성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함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혈압, 스트레스 정도의 작은 변화로 인한 누적효과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결국은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에 대한 메카니즘은 입증되지 못했다.

1990년 프리드만은 어째서 애완동물이 인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 애완동물을 기쁨으로써 인간은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이들을 돌보기 위한 적정의 운동을 하게 되며, 애완동물이 동반자가 되어줌으로써 인간의 우울과 외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은 편안한 사회적 교류의 원천과 안정감 그리고 외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면역시스템의 효력을 손상시켜 결국은 질병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개와 같은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운동의 자극이 되어주기도 해서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데도 이바지하기도 한다.

국내의 사례

다음은 국내에서 동물병원을 7년간 운영하고 있는 한 수의사가 임상치료를 하면서 체험한 사례들이다.

외동딸을 둔 한 맞벌이 부부가 그 딸이 3살되던 해에 유아원 선생님께서 부터 아이가 자폐증 증세를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보였더니 의사로 부터 보조치료의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것을 권고받았다. 이에 바로 강

아지 한마리를 사서 키우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자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개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이가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나 개에게는 말을 하는 내용을 듣고 그 아이의 심리상태를 파악,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개를 매개체로 아이가 점점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 아이는 드디어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로 말문이 트이게 되면서 자폐증 치료에 호전을 보이게 되었다.

6살난 외동남아가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는데 이 아이는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자기기분 좋을 때만 노는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이기적인 아이였다. 어느날 이 강아지가 병에 걸리자 그 아이는 강아지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생물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후 개를 돌보면서 정신적 교감을 느끼고 '친구', 혹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아이가 남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하며 사교성도 늘어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중학생 남자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애완동물을 사랑하므로 애완동물을 더욱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무척 대단하여 병원 원정님을 수시로 방문,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관련도서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물어 늘 책을 탐구하는 편이었다. 그후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책을 읽는 습관과 연구하는 습관들이 길들어 저서 지적 탐구력과 논리적 사고력 등이 높은 학생이 되었다. 물론 이 학생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었으며 내년부터 바뀌는 논술형 대학입시에도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아이들이 안기르는 아이들보다 지적 호기심이 높아 학습력이 뛰어난 학생이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한 예이기도 하다.

2.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기르기

머릿말

대한수의사회는 반상회보 및 기타 간행물과 신문

의 사설 및 투고에 나타난 애견사육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개에 대한 불만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본회는 그와 같은 불만이 부적절한 개의 관리에서 야기되고 무책임한 개주인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거주자들로 부터 반견감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개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지닌 애견가들이 많이 존재하나 몇몇은 아마도 무관심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를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애견과의 생활을 통해 기쁨과 편안함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부터 개를 기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개를 기르고자 한다면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한다.

본고는 만일 개를 없앨 수 없다면 개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한수의사회 홍보위원회에 의해 출판되었다. 본고를 통하여 개주인이 애견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회원과의 관계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개와 인간

개와 인간과의 관계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렵을 할 때인 약 2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와 인간과의 관계는 밀접해져 개는 인간에게 최고의 동료가 되었다.

현대 도시생활속에서 가장 대중적인 개의 역할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어떤 품종의 개이건 관계없이 사냥개, 양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또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건 많은 사랑을 받는 가족의 일환으로 인간에게 절친한 동물이 된 것이다. 인간이 개에 대해 품은 애정에 비해 개는 10배 이상의 애정으로 보답한다. 개가 바라는

것은 충성스럽고 충실함을 보여준 주인으로 부터 받는 칭찬과 사랑뿐이며 잘 관리되는 것이다. 개는 현대사회의 인간이 안고 있는 각종 정신적 문제를 잊게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에 싸여있는 인간을 차분하게 해주거나 개를 단한번 어루만져 보는 것만으로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노인의 여생을 보다 가치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

현대사회는 강도나 범죄의 흉포성이 날로 증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견의 역할이 필요하다. 애완견 만큼 그의 주인과 가족에게 철저히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없다.

거의 모든 애완견은 자기를 화나게 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우호적이어서 개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만일 모든 동물중에서 애완견만이 인류에게 유익한 수많은 일을(시각장애인 인도견, 맹도견, 경비견, 탐색견 등) 할 수 있게 선택된 이유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애완견만큼 지능이 있고 타고난 본능과 충성심을 지닌 동물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마디의 칭찬이외에는 어떤 보답도 주인으로 부터 받지 않으며 인간의 동반자로 인간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개의 선택

애견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애견을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우 주의깊게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의 주인으로서 지켜 나가야하고 준비해야할 수많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강아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본 귀여운 강아지를 쉽게 선택해서는 안된다, 당신은 애견의 품종을 알아야 한다. 만일 순종이라면 품종에 대한 책을 읽고 앞으로 이 개가 어떻게 될것인지 심지어 애견의 성격 및 개성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질병 및 피부질환에 쉽게 걸릴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잡종견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애견의 성격이 완전히 발달될 때까지 약 10개월 이내의 잠종견을 가능하면 구입해서는 안된다.

개의 평균수명은 10년내지 12년 또는 그이상이다. 이 기간중 애견의 생활도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뿐만아니라 이웃주민 특히 고층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행복해져야 한다.

아파트내의 제한된 공간때문에 소형품종의 개만이 아파트에서 기르기에 적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소형견종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탁 트인 공간을 달리기를 상당히 그리워하는 소형 스포츠견종은 좁은 공간에서는 불안함과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소형하운드인 비이글, 닥스훈트, 코커스파니엘과 대부분의 테리어 품종들이다.

아파트에서 기르기 적합한 품종으로는 페키니즈, 퍼그, 쉬즈, 치와와 및 기타 품종이 있다. 이러한 개들은 정원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만족스러우며 따라서 문제를 덜 야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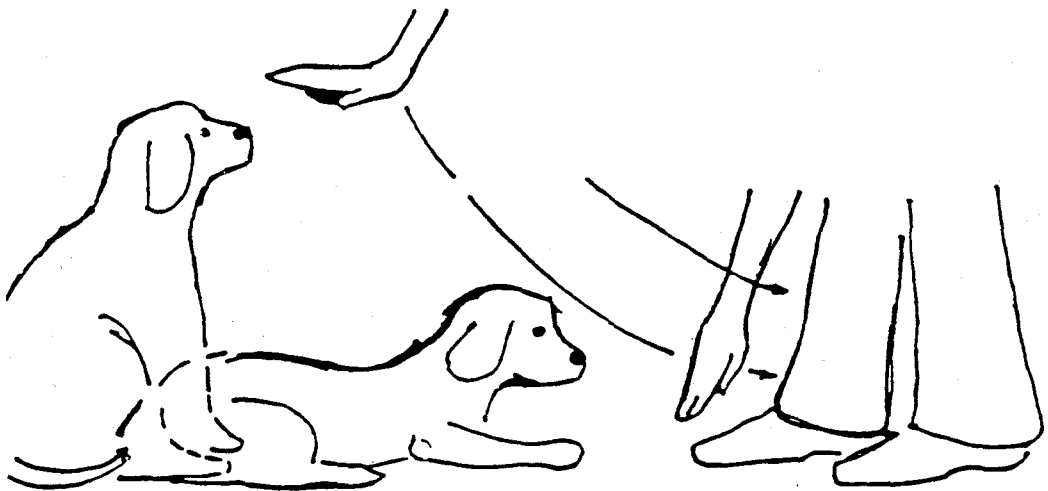
대중적이고 잘 알려진 품종으로 포메라니언이 있다. 포메라니언은 매우 사랑스러운 개이나 매우 심하게 짖는 단점이 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원하지도 않는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 심하게 짖어댄다. 그러

나 불필요하게 짖지 않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포메라니언은 매우 활동적인 작은 개이나 다소 소란스러우며 어린이가 심하게 다룰경우 골절상을 쉽게 입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견종이 있다. 아름다운 털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런 개이다. 이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소형의 토이푸들, 쉬즈, 오스트레일언 실키 테리어와 말티즈이다. 이같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털이 엉키지 않도록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베틀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매일매일의 털손질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만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거나 이같은 일에 흥미를 갖지 못한다면 장모견종은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이런 개품종은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털손질을 필요로 하며 털을 가꾸는데 별도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들은 경이적인 특성을 지니고 매우 재미있는 품종이다.

• 애견 돌보기

개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사료의 양을 급여해주어야 한다. 신선한 물



을 항상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정기적인 털손질을 통해 개의 벼룩과 진드기를 검사하여 준다. 정기적인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구충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을 주고 사랑으로 개를 대해주어야 한다.

우선 개집을 마련해서 잠자리를 정해준다. 잠자리는 외부로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가족구성원이나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한구석을 정해준다. 이곳은 아마도 아파트의 한구석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아마도 천국같은 곳이 될 것이다. 만일 강아지를 구입했다면 둘째에 울타리를 쳐주고 언제든지 잠을 잘수 있도록 단기간 제한시켜준다. 성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며 또한 복종줄로 묶어둔다. 며칠후 강아지 또는 성견은 피곤할때면 언제든지 그 장소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아무곳에서나 잠을 잘 경우에는 가만히 들어 그 장소로 옮겨준다. 개를 내려놓고 깨운뒤 개에게 '기다려'라는 명령을 말해준다. 개가 그같은 훈련을 받기 위해선 주인은 일관성을 가지고 참을성있게 지켜보아야 하며 또한 개에게 완고해야 한다. 당신이 개에게 요구한 행위를 개가 행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언제나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개는 당신의 칭찬을 알아 듣는다. 그러나 개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개를 때려서도 안되며 그같은 행위는 개를 신경질적으로 만든다. 뭔가 잘못된 행위를 보였을 경우 확고하고 일정한 목소리로 '안돼'라고 말해준다. 이때 눈으로 응시하면서 손으로 '안된다'는 표현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러면 개는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용변 훈련

우선 배변장소를 선택한다. 예를들면 화장실 또는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놓은 장소와 같은 곳이다. 만일 개가 자는 곳이 방안이라면 자는 곳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을 선정한다. 이것은 개가 본능적으로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잠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뇨 및 배변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시판되는 것들을 사용하여 배뇨와 배변을 유도할 수도 있다. 배뇨, 배변 유도제를 신문지 위에 몇방울 떨어뜨려 놓아둔다. 강아지는 대개 1일 3~4회 배변하며 10~12회 배뇨한다. 성견은 횟수가 적지만 개가 먹이를 먹거나 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배변 및 배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강아지나 성견을 이시간에 배변장소로 옮긴후 배뇨·배변을 볼때까지 기다린다. 한번 개가 배뇨·배변을 하면 칭찬을 해준다. '잘한다.'이름을 불러준다. 'good boy/girl'. 약 1주일후 깔아놓은 신문지를 개가 배변하기에 충분한 정도만 남겨놓고 제거한다. 그리고 개가 그 장소로 가는 지를 꼭 확인해서 분변을 치우고 새신문지로 바꿔준다. 개가 완벽하게 종이위에 용변을 볼때까지 가족의 구성원으로 항상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며 개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용변을 볼 경우에는 개를 재빨리 집어 신문지가 있는 장소로 옮겨준다. 만일 종이위에 용변을 보면 칭찬을 해주고 영리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만일 애견이 다른 장소에서 용변보는 것을 발견시에는 끝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즉시 확고한 경고의 목소리로 '안돼'라고 말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뒤 애견을 용변을 보는 장소로 옮겨준다. 절대로 때려서는 안되며 개의 코를 분변에다 비벼서도 안된다. 물론 즉시 분변을 치워주고 물이나 식초 또는 시판되는 냄새제거제로 냄새를 제거한다.

강아지나 성견이 실수없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주인은 참을성있게 지속적이어야 한다. 특히 다 자란 숫개가 타고난 본능때문에 영역표시로 이곳 저곳에 소변을 흘리는 경우이다. 또한 강아지가 흥분했거나 놀란 경우에는 자기가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는 것을 개주인은 기억해야 한다.

· 씹지 못하게 하기

강아지나 성견은 충동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가구,

슬리퍼, 신발 등을 물어뜯는 습성이 있다. 특히 강아지의 경우 치아가 돌아날 때 더욱 그렇다. 만일 애견이 물어뜯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눈으로 응시하고 손으로 제지하는 표현을 하면서 목소리로 '안돼'라고 말해야 한다. 역시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 애견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즉시 꾸짖어 개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시간이 지난 뒤에 꾸짖게 되면 설령 그 장소로 데려가더라도 개는 주인이 왜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하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해준다.

강아지나 성견의 물어뜯는 습성은 만족시켜주어야 하므로 고무형태의 뼈 또는 개껌이나 개가 물어뜯고자하는 낡은 신발을 주어 물어뜯을 수 있게 해준다. 커다란 통뼈를 줄 수도 있으나 닭뼈는 조각때문에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 온 식구가 집을 비울 때는 집안의 구석에 마련된 개집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 짖지 못하게 하기

애견이 짖는 것은 자연적인 습성이며 애견들끼리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애견이 짖는 경우는 이상한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이 접근할 때 배고픔을 주인에게 알리려고 할 경우, 밖으로 나가길 원할 때이며 만일 애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게 되면 짖는 것을 통해서 이 애견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애견은 외롭거나 지루할 때도 짖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짖어댄다. 이것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문제를 일으킨다. 포메라니언 및 대부분의 테리어종 같은 품종보다 더 많이 짖는 견종이 많이 있다.

짖는 습관은 강아지때 부터 고칠 수 있다. 성견의 경우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나 교정될 수 있다. 새로 들어온 강아지가 첫 며칠간 짖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모견과 동배견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며칠간 한밤중에 일어나 강아지를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등불을 약하게 켜놓거나 라디오를

조용하게 틀어 놓거나 시계소리를 듣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강아지는 실제적으로 4~5주가 되어야 짖는다. 이 시기에 강아지가 짖는 것은 귀엽다. 그러나 그때부터 훈련시켜야 한다. 만일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점차 성장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지며 보다 짖는 소리가 커지고 귀찮아지게 된다. 누군가가 문쪽으로 접근했을 때만 짖어야 하며 이런 경우라도 개에게 '조용해'라고 명령을 하면 즉시 짖음을 멈추게 훈련시켜야 한다. 개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령어는 어떤 명령이든지 간결해야 하며 주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는 안된다. 그리고 일정한 강도의 음성으로 말해야 한다. '조용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견이 계속 짖는 경우에는 명령을 반복한 후 동시에 손으로 책이나 책상을 쳐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만일 그래도 짖을 경우에는 두손으로 양볼을 꼭 잡거나 입을 꼭잡은 다음 '조용해'라고 응시하면서 말해준다.

개는 친구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혼자 남겨질 경우 주인을 향해 짖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가족중에 한사람이 늘 집에 남아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위의 방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개가 외부로부터 나는 소리나 복도를 지나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구석이나 아이들이 장난을 칠 수 없는 아파트의 한 구석에 마련된 개 집안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자유롭게 집안에 풀어 놓아서는 안된다.

개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고무장난감이나 씹을 수 있는 커다란 뼈를 준다. 라디오를 약하게 틀어놓거나 시계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것도 개가 짖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애견을 하루 이상 혼자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 장기간 집을 비워둘 경우에는 개를 맡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동물병원, 애견호텔(Boarding Kennel)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할 때는 집을 봐주는 사람을 두어 개를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위한 사료, 물, 잠자리 등을 배려하더라도 개는 당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짚게 되고 어느 누구도 짚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만일 당신이 집에 있는 것을 개가 알면서 자기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짚는 경우에는 즉시 '조용해'라고 크게 소리쳐야 한다. 만일 개가 짚는 것을 멈춘다면 몇분 기다린 후 개에게 다가가서 칭찬을 해준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짚는 경우에는 책과 같은 것을 흔들거나 개의 주둥이를 꼭 잡는다. 그래도 짚을 경우에는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좌우로 흔들어서 준다. 이때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충격효과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개가 짚는 것을 멈춘 경우에도 칭찬을 해준 후 수초간 당신이 기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를 훈련시키는 데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애견을 짚지 못하게 하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성대절제술을 실시한다. 수의사는 아마도 성대절제술이 개의 정신건강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은 개가 짚는 대신 기침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경우 안쓰럽게 느낄 것이다.

개는 주인을 기쁘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쉽게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의 훈련은 애정과 결단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견훈련학교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올바르게 훈련된 애견은 훌륭하고 즐거운 가족 구성원이 되며 여러분이 기르는 애견에 대한 이웃사람들의 불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한 사실은 훈련되지 못한 개는 애완견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애견과 산책하기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하루 1~2회 산책을 즐기며 산책함으로써 다른 사람, 다른 개 및 특히 고양이가 등과도 접촉하게 될 것이며 지나가는 차량 및 개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알게 된다.

애견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복종줄을 채워준다.

애견을 통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복종줄(choke chain)을 사용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채워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복종줄은 길게 사용하고 플라스틱 봉지나 종이타올 또는 신문지를 몇장 준비한다.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실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애견을 통제한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 승강기에 승차하거나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외출용 케이지에 넣어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개를 대동하고 다니면 개가 타인을 보고 짚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개의 행동에 개의치 않으나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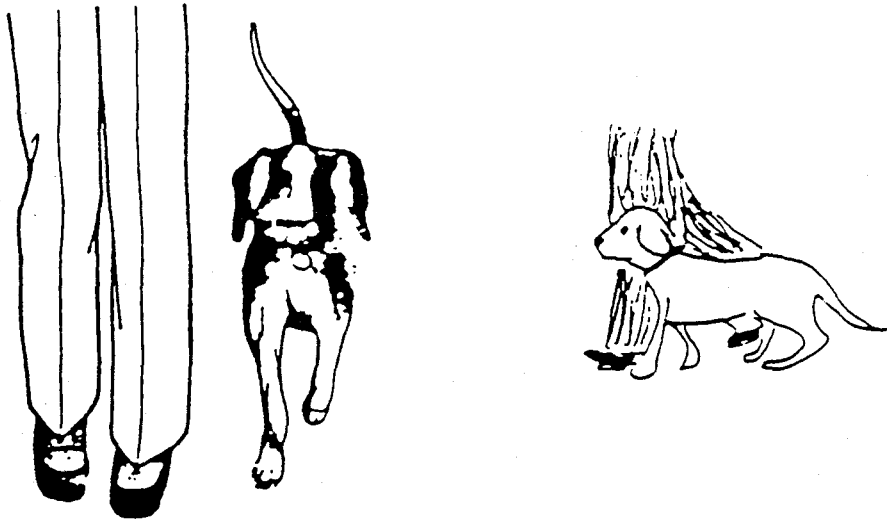
애견을 종교적인 이유로 매우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소형견이건 대형견이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당신의 개를 가능하면 그와같은 사람이 없는 길로 데리고 가야한다. 또한 애견을 대동할때 복도나 승강기내에서 소변이나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공원이나 기타의 애견을 운동시킬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면 즉시 개줄을 목줄에 연결시킨다. 걸을 때나 애견을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개줄은 항상 잡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애견관리(Licensing and Control for the Dog Rules)에 관한 조항 제 4조에는 "개의 목에 목줄같은 것으로 금속성 뼈지를 안전하게 부착하지 않은 개, 넓은 장소 또는 견줄을 하지 않거나 주인 또는 다른 사람이 즉시 통제할 수 없는 개를 대동한 사람은 규칙위반에 해당하며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다른 규칙에는 그러한 개는 포획, 안락사 또는 가둬두며 해당기관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를 복종줄에 매듭으로써 주인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밖에 나갔을 때 숫개가 다리를 들어 본능적으로 고유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소변을 여러번 보게하는 행위도 불법이



다. 개의 이같은 행위는 그만두게 할 수 없으나 미리 이같은 행위를 예측하고 제지시켜야 하며 주인은 소변이 스며들 수 있는 구석의 잔디가 있는 곳으로 개를 옮겨주어야 하며 절대 방관해서는 안된다. 만일 개가 대변을 볼 경우에는 주인은 즉시 신문지나 종이 타올을 깔아주어 분변을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만일 바닥에 용변을 보아 변이 바닥에 남아있다면 그 분변도 치워야 한다. 위생적인 방법은 적절한 크기의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회용 투명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분변을 집은 다음, 비닐장갑을 뒤집어 끝부분을 묶고 휴지통에 버린다. 비닐장갑은 분변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손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까다로운 사람을 위해 이같은 목적으로 시판되는 팩이 있다. 개중인은 시민의 의무로서 애견의 분변을 치워야 하며 부끄러움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

이같은 사실은 모든 개주인이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여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시하는 주인은 벌금형에 처해야 하며 실지로 몇몇 국가에서는 법률로 제한받는다.

지금까지 기술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를 기르는 방법으로 실제 적용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요약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의 책임은

- 1) 실내에서건 쉼터에서건 지속적으로 찾아대는 개는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잡지 못하게 한다.
- 2)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의 자기집으로 부터 개가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한다.
- 3) 산책시나 집밖으로 나올 때는 언제나 복종견줄을 통해 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4) 공공장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개의 비설물은 반드시 주인이 치워야 한다.
- 5) 개를 싫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고층아파트 거주자로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애견가족클럽과 같은 동호회를 조직해서 무책임한 개주인에 대한 교육과 권고 및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애견가족이 사랑스런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이나 기타의 정신적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